다산포럼

김정남

못다 부른 나의 귀거래사

귀거래 귀거래 말 뿐이오 간 이 없네/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가고 어찌할꼬/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며들며 기다리나니

이것도 자격지심인가. 농암 이현보(1467-1555)의 이 시조는 꼭 나를 두고 한 말 같다. 나는 10여년 전부터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이 지겨운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돌아갈 곳을 찾는 답시고, 전국의 방방곡곡 찾아 헤맨 것도 여러 번이요, 신문의 광고면이나 정보지를 챙겨보는 습성이 생긴 것도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정작 가자고 대들면,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문제가 걸리더니, 그 다음에는 애들이나 출가시켜놓고 보자며 물러서기 여러 번이었다. 지금도 아내는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옷깃을 잡아당겨 여태껏 미적거리고만 있는 것이다.

서울 떠난 사람들 부러워

내가 못나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모든 것 뿌리치고 훌훌히 떠나 내려가 사는 사람들이 내게는 그렇게도 우러러 보일 수가 없다. 이현보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농암가'를 부르며 경상북도 예안 땅,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지난 여름 강원도 인제의 개인산방(開仁山房)엘 다녀왔다. 내가 경애하는 산방주인 미산 신남휴는 마침 부재중이었지만, 있는 동안 내내 그를 부러워만 하다가 돌아왔다. 신영복·신경림의 '더불어 숲 학교'가 이 개인 산방 안에 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서울을 떠나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나, 제가 태어나 자란 고향에 터 잡아 사는 사람들의 그 개결한 인품에 반하기 시작했다. 원주의 터줏대감으로 살면서, 오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향훈(香薰)을 많이 뿌려 만인의 추모와 존경을 받고 있는 청강 장일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면식이 거의 없는 한승원·김성동·이철수·김봉준·김용택·이원규·박남준 같은 시인 묵객들의 결단과 그 삶은 나를 여지없이 열등감과 부끄러움에 빠트리고 만다.

교통부장관을 지냈던 손수익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그의 고향인 전남의 장흥에 내려가 '장흥학당'을 차리고 거기서 당주(堂主)노릇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나는 그들의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 어울려 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언젠가는 장흥읍내의 거리에 "장흥이 없었더라도, 과연 호남이 있었을까"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높이 걸린 것을 본 적이 있다. 대단한 자부심이었다. '호남가'라는 노래가사에 "태인(泰仁)하신 우리 성군(聖君) 예악(禮樂)을 장흥(長興)하니"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과연 장흥에서는 그에 걸맞는 문인, 일사(逸士)가 많이 나왔다. 단순히 내려가 산다는 것 위에 보람을 창조하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요, 황폐해 가는 전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어릴 적 자랐던 상자지향(桑梓之鄕)은 도시개발로 말 그대로 상전이 벽해로 변했으며, 함께 뛰놀았던 동무들은 천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고향인 옛날의 자취도, 사람도 없다. 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고향을 사기당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보다 내가 더 참담한 신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아갈 고향도 사라졌지만

내가 내려가 꾸릴 삶에 남다른 특별한 목적이나 까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의 잡답(雜沓)을 떠나 이것저것 안 보고, 안 듣고 싶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꼭꼭 숨어 은둔하자는 것도 아니다. 챙겨주는 이 없어도 찬물에 물을 말아 된장에 풋고추 찍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면 족하고, 찾아오는 친구 있어 밤새 도란도란 청담(淸談)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내 부르고 싶은 귀거래사가 고작 이런 것인데도, 막상 떠나기가 이렇게 어렵다. 아내가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반대하니, 아무래도 멀리 가기는 틀린 것 같다. 그러나 저러나 나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나.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亞문화도시 요구사항 반영 구체화해야

윤곽을 드러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이 실망스럽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최근 열린 3차 회의에서 문화관광부의 종합계획안을 보고받고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문화관광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공사 발주라는 시간적 촉박성을 들 수 있다. 위원회는 17일 서울의 4차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 다음달 8일 광주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최소한 내년 초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정을 감안하면 랜드마크 기능 보완과 대형 공연장 건설 등의 요구를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란이 뜨거운데다 지역사회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위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문광부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 등은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보완, 대형 전문공연장 설치, 문화전당 내부 주차장 최소화 등을 건의해왔다. 문화관광부는 랜드마크 기능 등 일부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소극적 입장이다.

대안도 아직 미흡하다. 조성위원회는 문광부의 종합계획안을 수용하면서도 문광부가 밝힌 랜드마크 기능, 현대미술관 분관, 대형 전문공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 용역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계획안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랜드마크 기능 이나 사업비 증액 등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도 정부의 향후 추진과정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대선 정기국회=부실국회' 관행 한심하다

연말 대선을 앞둔 올 정기국회가 '부실국회'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됐다.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해온 국정감사를 다음달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10월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사실상 한달 이상 '개점휴업'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근본원인은 정치권의 힘겨루기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이명박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한나라당은 무차별 폭로를 우려해 '추석연휴 전 국감 불가'의 배수진을 쳤다. 국감 전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자는 제안도 거부해왔다.

정치권이 의사일정에 공식 합의한다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국정감사를 비롯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오는 11월 25~26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치면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의정활동은 어렵게 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경선 일정까지 감안하면 '날림국회'가 될 것은 뻔하다.

정치권은 제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결같이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의사일정에 합의를 보지 못해 민생법안과 관련된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뿐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권에 '상식'과 '합리'를 주문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 수 있다. 정치권은 대선정국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남북정상회담, 새해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처럼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다가 회기를 마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대선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까지 외면해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당장 민생법안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조 칼럼

김영민

계약서 작성 생활화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금전거래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돈을 준 것은 맞는지, 돈을 준 이유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건관계인들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계약서 한 장만 있었더라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처럼 많은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우리 사회는 유달리 정에 약하다. 평소 아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저 몇 마디 말만 나누고 선뜻 돈을 건넨다.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다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차마 말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된다.

돈을 준 액수에 대한 주장이 서로 일치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나중에는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 이자는 받기로 한 것인지, 언제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서로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양립된 주장은 때로 한쪽의 거짓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사자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미국 버지니아 로스쿨에서 연수를 하면서 미국의 법률교육뿐만 아니라 미국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곁눈질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계약서 문화이다. 학교 기숙사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갈 때는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하도 상세하고 양이 많아 법률가인 필자조차도 다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고 심지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에도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해야했다.

처음에는 기숙사 입주가 뭐 이리 복잡하냐는 생각을 했으나 필자의 그와 같은 생각은 1년이 되지 않아 바뀌게 되었다. 사정이 생겨 약정 기한보다 일찍 기숙사에서 나와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 그 절차, 비용부담 문제 등이 모두 다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번잡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복잡한 입주계약서 덕에 기숙사에서 나오는 절차가 아주 쉽고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으니 결국은 계약서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눈앞에 와 있다. 이제 곧 국제적인 법률기준이 우리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법률문화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법률문화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필자는 계약서작성을 생활화하여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민사, 형사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이제 사소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한 장의 계약서라도 작성하여 보자. 당장은 약간 어색하고 차갑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다툼을 막고 가까운 사람과의 정을 길게 이어가는 방법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김재곤

농어촌 교육의 희망 '영어체험캠프'

우리의 교육열은 고도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제 세계화로 그 활동무대가 넓어진 만큼 요즘에는 외국어 열풍이 거세다.

그렇다면 전남의 영어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삼성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에 의하면 영어관련 사교육비가 연간 14조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학생 1인당 연간 120만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학생수에 따라 교원과 교육예산을 배정하고, 도서·벽지 교사들에 대한 선택 가산점을 축소하면서 지방의 교육여건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농어촌의 교육, 의료, 복지 등을 도시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다. 급기야 지난 8월 박준영 지사가 '교육부의 도농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라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대안의 하나로 학생과 학부모가 절실히 선호하는 해외어학연수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했다. 바로 '하계영어캠프'다. 이 영어캠프는 지난 7~8월 방학기간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초·중학생 8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 부담없이 이뤄졌다.

박준영 도지사가 지난해 미국방문시 자매결연 지역인 미국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원어민 강사 지원협정을 맺은 결과에 따라 강사 35명을 초청했고, 도 교육청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영어교사 96명을 파견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원어민교사들의 '홈스테이'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적극 환영 받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학생들은 편의점과 요리관 등 실생활에 필요한 15개의 체험관에서 철저한 체험위주의 생활영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즐거워 했다.

원어민 강사도 홈스테이를 개인적으로 연장하면서 다시 한번 전남에 초청해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도에서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영어캠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물론 도에서도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지역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체험현장관을 건립할 수는 없지만 기존 학교에 셋트장을 지어 현장감을 높이는 문제, 평상시 어학실습실 등 도시학교에 버금가는 외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 미국내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해 원어민강사의 장기적인 수급 대책 수립, 참여학생의 폭을 넓히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재정형편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도가 자체예산 7억원을 투입해 농어촌학생을 위한 영어교육에 직접 나섰지만 앞으로 농어촌 교육은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부문에서부터 균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영어체험캠프가 농어촌 교육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면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無等鼓

스파이

'여호수아는 정탐원 둘을 밀파하며 에리코 지역을 살펴보고 오라고 일렀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탐원들은 에리코에 잠입,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을 찾아가 거기에서 묵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이자 지중해의 고도인 에리코에 들어가기 전 에리코의 동정을 사전 탐지한다. 여기에 등장한 직업이 매춘부와 정탐원, 즉 스파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을 꼽을 때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다. 이처럼 스파이의 역사는 인류사의 여명처럼 장구하다. 스파이란 직업에는 목숨과 맞바꾸는 충성, 불쾌하면서도 매혹적인 가면, 속임수와 불법, 선의의 거짓과 몰염치, 은폐와 배신 등 온갖 극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직업 특성상 애국자이거나 매국노, 혹은 몽상가일 수밖에 없는 스파이는 늘 선망과 증오라는 양 극단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20세기는 '스파이의 세기'로 불리운다. 무선통신과 암호술 등 과학의 진보는 스파이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마법전쟁'(wizard war)으로 불렀다. 이름없는 스파이들의 노력으로 독일의 난공불락 암호체계 '에니그마'를 해석한 것이 승리의 주역이라는 얘기다.

국가기관으로 스파이 조직이 창설된 것은 1909년 세워진 영국 비밀정보부(SIS)가 처음이다. 지금은 육군정보부 제6과의 약칭 'MI6'으로 불리운다. MI6가 1천여명의 소수정예인데 반해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다. 러시아의 KGB(국가보안위원회)는 구 소련 시절 공포정치의 상징이었다. 독일의 연방정보국(BND)과 이스라엘 모사드도 탁월한 정보력으로 유명하다.

이런 스파이 조직의 생명은 완벽한 보안에 있다.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과다 노출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치 지향형 정보맨의 고질병'인 듯 하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무심코 버린 카드영수증 인터넷 범죄 도용 우려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가 주유기 옆에 세워져 있는 휴지통에 신용카드 영수증이 가득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버려진 카드 영수증은 쉽게 노출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원래 신용카드 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식별하는 것은 신용카드 번호가 유일하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은 얼마든지 물건 값을 결제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비밀번호까지 노출되면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흔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된다. 무심코 버린 신용카드 영수증이 남의 신용카드를 대신해 쓸수 있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신용카드 영주증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김주영·함평경찰서 동삼지구대

폐농약병 논·밭에 방치 사고 위험

논이나 밭에서 막바지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 살포를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농약을 하고 농약병 회수에 농민들은 무관심을 보이고 아무곳에 버리거나 많은 비가오는 틈을 이용 버리는 악덕 농민들도 있다. 농약병을 논이나 도로변에 그대로 두고 가는 일부 농민도 있다.

하지만 농약병 안에는 소량의 농약이 남아 있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무심코 만지거나 입에 댈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농기계나 차량들로 인해 병이 깨질 경우 그 조각이 농민들이나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가축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

농민들은 농약을 하고 나면 농약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약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약용기는 음료수병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농약임을 알리는 해골마크의 표식도 예전과는 달리 용기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인쇄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농약을 하고 나면 농약병 관리는 노약자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하고 주방이나 냉장고안에는 절대 보관해서는 안되고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선반에 보관하거나 창고 깊숙이 보관해야 한다.

▲박정순·화순군 화순읍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회2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AX 222-8005〉 광고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사업2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